



20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73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본무 회장의 빈소에 구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일 오후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연합뉴스

조용하고 간소하게… 고인 유지 따라 ‘비공개 가족장’

소탈한 성품 “번거롭지 않게”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빈소

LG그룹이 고 구본무 회장의 장례식을 고인의 뜻에 따라 3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2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고 간소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며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3일 동안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구 회장의 빈소는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문이 닫혀 있었다. 빈소를 지키는 LG그룹 관계자들의 출입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빈소의 문틀 사이로는 ‘소탈했던 고인의 생전 궤적과 차분하게 고인을 애도하려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오니 너른 양해를 바란다’는 문구가 보였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다.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상주로써 조문객을 받고 있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과 구본능 회

성그룹 회장, 하현희 LG 부회장 등은 빈소가 마련되기 전에 장례식장에 도착해 빈소를 지키고 있다. 계열상 임원들은 이날 조문은 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객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후 4시 8분경 첫 재계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어 5시까지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광수 삼양 인터내셔널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가족 외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기로 한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조화는 LG그룹에서 모두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룹과 관련된 LS, GS, LIG 조화는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 추모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구본무 회장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정도경영’ 기업인에 모범… “韓경제 큰 별 읊었다”

경재계 애도·외신 보도

“전자·화학·통신 일류반열 올려
韓경제, 지금의 번영·영광 누려”

재계의 대표적인 ‘덕장’로 불린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에 경제계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별이신 구본무 회장님께서 별세하신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님께서는 혁신을 통해 화학, 전자, 통신 등의 산업을 세계 일류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선도적인 기업가였다”며 “정도경영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길을 걸으셨으며 늘 기업인들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구본무 회장은 1995년 LG그룹 회장 취임 이후 ‘노사(勞使)’를 넘어선 ‘노경(勞經)’이라는 신 노사문화 형성을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추구했다”며 구 회장의 별세를 애도했다.

또 “LG그룹은 구 회장의 정도 경영에 따른 노경화합으로 험난한 구조조정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그룹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구 회장은 미래를 위한 도전정신으로 전자·화학·통신 산업을 육성했고, 정도경영을 통해 고객에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경제계는 구 회장의 태계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한국경제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2월 22일 LG 회장 이취임식에서 구본무 신임 회장이 LG 깃발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1999년 8월 구본무 회장(오른쪽)과 구자경 명예회장이 담소하고 있는 모습. 2010년 7월 LG화학 미국 휠랜드 전기차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구 회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06년 6월 LG글로벌챌린저 발대식에서 구 회장이 대학생들과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무역 9강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도했다.

주요 외신들도 구본무 회장의 별세에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통신사들은 구 회장의 이력, 업적, 후계체제 전망 등을 자

세히 다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부고 기사에서 구 회장이 투명한 소유자배구조를 국내 재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아들인 점을 먼저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구 회장이 현지에서는 재벌로 불리는 그룹을 1995년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아 이끌어온 3세대 경영자였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구 회장이 조부가 1947년

에 창업한 업체를 ‘기업제국’으로 확장한 업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 회장이 LG그룹을 아들인 구광모(40) LG전자 상무에게 넘기라고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구 회장이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LG그룹을 글로벌 브랜드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정은미·구서윤 기자 21cindiun@